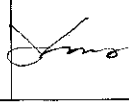


	담당	팀장	단장	공
				람

보도매체		일시		보도크기	
------	--	----	--	------	--

기호일보

2008년 11월 10일 (월)

제6067호 창간 1988년 7월 20일

화성호 '글로벌 팜' 개발 효과적

이어령 전 장관, 각 나라별 테마단지 구성 제안

경기도 화성호 일대에 세계각국의 테마농장이 들어서는 글로벌 팜 조성방안이 제안됐다.

도는 9일 경기도 구석구석알기 행사의 일환으로 김문수 경기지사, 이어령 전 장관, 도 관계자 30여 명이 화성시 서신면 화성호 간척지를 방문, 서해안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.

이 자리에서 최형근 도 농정국장은 화성호 간척지 240만여㎡에 대한 개발 구상으로 말산업단지, 클리어 가든, 야트로파 재배단지(바이오 오일 원재료식물), 사계단지, 와인생산단지 등이 조성되는 AFK(에그로파크, 푸드벨리, 클라인가르텐)단지 사업 구상을 제시했다.

그러나 이 전 장관은 도의 이 같은 구상에 대해 “공간을 기능적으로 나눈 AFK단지 사업은 이미 각국에서 이미 실시된 사업으로 차별화가 필

요하다”며 “공간구조를 사계단지는 일본농촌, 와인생산단지는 프랑스 농촌 등으로 나라별 테마로 구성하라”고 제안했다.

이 전 장관은 또 “공간구조가 나라별 농촌으로 구성되면 관광산업적인 측면이 크게 강화될 수 있다”면서 “도의 구상은 농정중심의 발상으로 화성호 간척지 개발사업의 발상을 전환할 수 있는 T/F팀의 구성이 시급하다”고 지적했다.

특히 “글로벌 팜 구상은 세계 최초의 시도이기때문에 각국가의 경축일, 축제 등을 콘텐츠로 활용해 해당국가의 여행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”이라며 “이러다보면 외교적으로 도의 위상이 강화될 수 있고, ‘세계속의 경기도’로 거듭날 수 있는 홍보효과도 충분하다”고 주장했다.

이와 함께 이 전 장관은 “외자유치 측면에서도 AFK사업 추진보다

는 글로벌 팜이 외국기업이나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충분하다”면서 “인위적인 인프라 구축보다는 글로벌 팜을 조성하고 관광적 기능을 부가시키는 것이 효과적”이라고 강조했다.

이에 대해 김 지사는 “이 전 장관의 제안은 매우 매력적인 제안이다. 두가지 안을 각각 수립해 비교해 보자”면서 “관련법, 행정절차, 지형 등 제반사항을 고려, 화성호 일대를 관광과 생산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창조하자”고 말했다.

한편, 이날 김 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들은 화성·안산일대의 당성·옛 경기도립직업학교 등을 방문해 당성의 역사적 정체성과 복원작업의 고증방법, 도립직업학교의 경기창작센터 활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.

김양수 기자 kimys@kihoilbo.co.kr